

1 『독도의 날(10.25.)』 기념 공동기획전 개최

2 자연유산 지식백과

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천연기념물 제211호)

3 센터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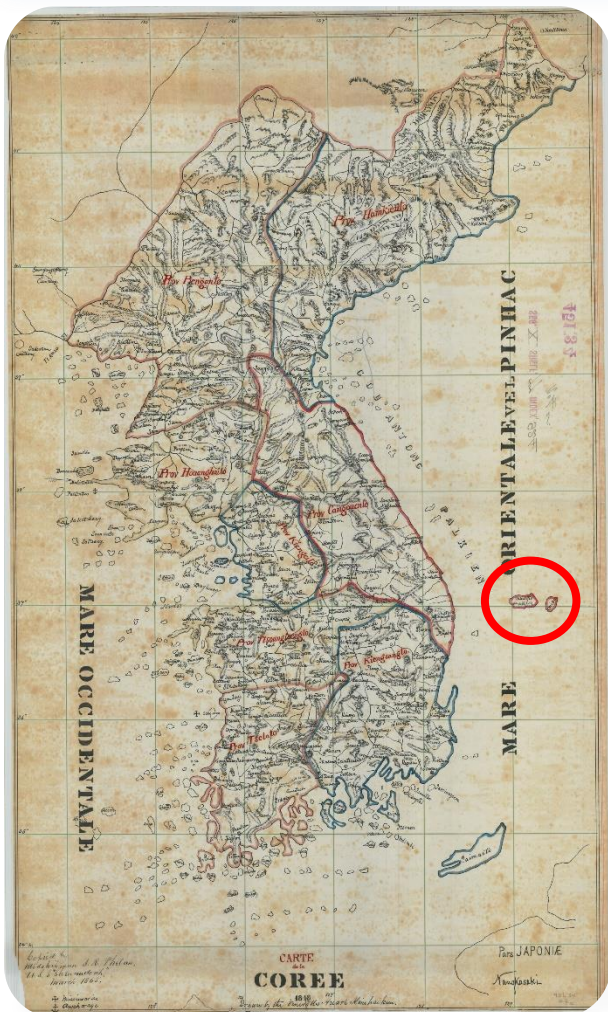
천연기념물센터 박제사를 소개합니다

4 센터 가을 소식

『독도의 날(10.25.)』 기념 공동기획전 개최

'독도의 날(10. 25.)'을 기념하여 우리 고유영토 '독도'를 주제로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박물관,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천연보호구역 독도가 갖는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 기 간 : 21.10.25.월 - 12.31.금.
- ✓ 장 소 : 천연기념물센터 1층 기획전시실
- ✓ 참여기관 : 천연기념물센터,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박물관, 국립생물자원관
- ✓ 전시내용
 - 독도의 과거(독도가 기록된 고지도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
 - 독도의 현재(독도의 현재를 살아가는 생물들을 전시)
 - 독도의 미래(독도와 관련된 미디어 자료를 전시)
 - 관람후기 등



명칭 : 조선전도(미국 국립공문서보관소 소장)

출처 : 동북아역사재단(독도체험관)

천연기념물 지식백과

무안 용월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천연기념물)



용월리를 하얗게 물들이다

무안 용월리의 마을 앞 저수지에 있는 백로 및 왜가리 번식지에는 나무가 새하얗게 보일 정도로 많은 양의 백로와 왜가리가 집단으로 번식하고 있다. 이 장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백로와 왜가리가 번식하는 장소 중 하나로서 보존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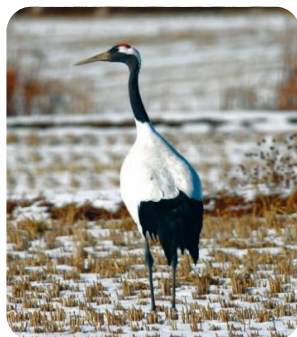
백로, 왜가리, 두루미, 비슷한 듯 다른 새



노랑부리백로



왜가리



두루미

백로와 왜가리는 색이 하얗거나, 목과 다리가 길어 두루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백로류는 대부분 몸 전체가 흰색이고, 왜가리는 등면과 날개 일부가 회색이며, 두루미는 목과 날개깃의 끝부분이 검정색으로 차이를 보인다.

옛 이야기 속 백로

옛 사람들은 백로를 시나 그림의 소재로 많이 이용하였다.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는 정몽주의 어머니가 지은 시처럼 백로는 순수와 결백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소재로 옛 선조들이 많이 사용하였다.

센터 사람들

생생한 '문화재수리기능자' 이야기 _ 오정우 연구원

Q. 천연기념물센터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동물팀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박제표본을 제작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은 소중한 자연유산으로서 보존을 위해 자연환경 속에서의 보호 뿐만 아니라 폐사한 이후에도 천연기념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폐사된 천연기념물 동물을 연구 및 전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Q. 박제 된 동물들이 취하고 있는 포즈가 다 다르네요. 박제를 할 때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나요?

박제표본은 가박제와 본박제 두가지의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여러 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표본은 본박제의 형태로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재현하여 생동감 있게 그 종의 습성이 표현되어 관람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본을 제작하기 전에 제작하고자 하는 권섭을 정하고 제작 형태를 참고할만한 자료를 수집하여 원하는 형태로 제작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Q. 지금까지 어떤 동물들을 박제하셨나요?

보통 천연기념물 위주의 동물을 제작하는 편입니다.

천연기념물 동물은 조류, 포유류, 곤충, 파충류 등 다양하며 독수리, 검독수리, 참매, 새매,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큰소쩍새, 반달가슴곰, 흑돼지, 점박이물범, 비단벌레, 장수하늘 등 많은 종류의 종을 제작하였습니다.

Q. 문화재수리기능자를 꿈꾸는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준비과정 나눔 부탁드립니다.

문화재수리기능자(박제및표본제작공)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동물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생태학, 생물학, 자연과학, 동물해부학, 보존과학 등의 학문을 습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섬세함, 표현력 등을 갖추어야하며 미술, 조각 등 예술적 감각이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1년

천연기념물센터 자연유산 체험사례 공모전

독도사랑 그림 공모전

공모내용

독도와 관련된 주제를 그림으로 표현
(독도 경관, 독도의 생물, 독도 경비대,
평소 독도에 대한 생각 등 독도와 관련 있는 주제)

접수기간

2021. 09. 13.(월) ~ 2021. 10. 01.(금)

응모방법

- 우편 접수 :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927
천연기념물센터 전시팀 (35204)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수상작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그림이 상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배송바랍니다.

결과발표

2021. 10. 11. (월)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연락

- 시상식 2021. 10. 25. (월) (예정)

공모대상 및 시상내용

공모대상	수상구분	시상내역
공통부문	대상	1건(문화재청장 상장 및 3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	1건(국립문화연구소장 상장 및 2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	2건(천연기념물센터장 상장 및 1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	10건(천연기념물센터장 상장 및 3만원 상당 부상)
유·초등 부문	특별상	1건(대전교육감 상장)
	최우수상	1건(국립문화연구소장 상장 및 2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	2건(천연기념물센터장 상장 및 1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	10건(천연기념물센터장 상장 및 3만원 상당 부상)
중·고등 부문	특별상	1건(대전교육감 상장)

※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www.nhc.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작품과 함께 제출바랍니다.

제출형식

8절지(272×394mm) 1장, 액자·유리 등을 제외한 그림,
평면작품으로 재료 및 방법 자유(크레파스, 수채화 혼합 등)

※ 규격 등 규정사항 미 준수 시 심사 제외

문의처

천연기념물센터 전시팀 T. 042-610-7610, 7616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



대전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가을 센터 소식



‘독도의 날’ 기념 공동기획전이 찾아옵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 기 간 : ‘21. 10. 25.(월) ~ 12. 31.(금) / 약 2개월
- 장 소 : 천연기념물센터 1층 기획전시실
- 내용 : 독도의 날(10.25)를 맞아 우리나라의 자연유산인 독도를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연출한 전시 입니다.



독도사랑 그림 공모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nhc.go.kr



센터 외부 보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관은 대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운영됩니다.
전시관 개관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관람안내



관람시간

동절기 10:00 - 17:00 (입장마감 16:30)
하절기 9:30 - 17:30 (입장마감 17:00)



전시해설안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대면 해설은 중단되었습니다.



휴관안내

매주 월요일, 설날·추석 당일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 유등로 927